

<p>민 지 실</p> <p>음 혜 천</p>	<h1>BUDDHANARA</h1>	<p>FAITH WISDOM ACTION</p>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 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 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토요일 11 시 전법 기도 법회, 정진옥 박사님과 함께하는 교리 탐구

넷째주 일요일 11 시 예불문 해설 II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 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학식 있는 말을 한다고 해서

정직한 사람은 아닐세,
비록 배우지 못했다 해도
바른 길 잊지 않고,
오른 일 쉬지 않는 사람,
진실로 올바른 사람이라네.

A man is not a follower of righteousness because he talks much learned talk; but although a man be not learned, if he forgets not the right path, if his work is rightly done, then he is a follower of righteousness.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7 년은 부처님 말씀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법전 종정예하, 22 일 敎示 내려

도립 법전 조계종 제 12 대 종정예하가 22 일 오후 “불자삼륜 수지, 보살행 실천, 전면적 사면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종정 교시(宗正 敎示)’를 발표했다.

도립 법전 종정예하는 교시를 통해 “첫째, 모든 종도들은 ‘지계청정’ ‘견성성불’ ‘중생교화’ 등의 불자삼륜(佛子三輪)을 수지할 것, 둘째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보살행을 실천할 것, 셋째 화합 승가를 위한 전면적 사면, 경감 조치를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종정예하의 교시는 지난 21 일 종단 주요 스님들의 종정 재추대 수락 요청과 하례를 받은 이후 내려진 것으로 모든 종도들의 신행과 수행 그리고 종무행정의 지침을 담은 것”이라면서 “특히 종정예하는 평소 승가의 제일덕목으로 화합을 대중들에게 늘 말씀해 오서 이번 교시 내용 중 사면에 대한 것 또한 그러한 평소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종정교시 전문.
宗正敎示

금번 ‘조계종 종정 추대회의’에서 老衲을 종단의 제 12 대 宗正으로 재추대한 결의를 진중한 마음으로 수락하며, 다음과 같이 모든 종도들에게 교시하는 바이다.

첫째, 모든 종도들에게 “지계청정”, “견성성불”, “중생교화”의 세가지 지침을 거듭 천명하노니 ‘불자삼륜(佛子三輪)’으로 수지할지니라.

둘째,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현실을 모든 불자들은 외면하지 말고 불우한 이웃에 대한 구제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여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실천할지니라.

셋째, 종단은 화합 승가이니 과거 종단의 개혁불사 기간 중 중징계를 받은 자들도 종단 발전에 회향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사면, 경감 조치를 행할 것을 당부하노라.

불기 2551(2007)년 3 월 21 일
大韓佛敎曹溪宗 宗正 道林 法傳

부처님 말씀

유식함을 자랑하지 말라

가르침 많이 외우고 익힌들 게을러 바르게 행하지 않으 수행의 열매 얻기 어려우리니

부처님이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의 큰 제자인 목갈라나와 아난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가 잘 외우는가에 대한 내기를 했다. 이를 본 다른 제자들이 부처님을 찾아가 목갈라나와 아난다가 내기를 하려 한다고 아뢰었다. 부처님은 다른 제자를 시켜 두 사람을 데려오게 했다. 소환을 받은 두 사람이 오자 부처님은 그들을 나무랐다.

“이 한심한 사람들아. 그대들이 정말 ‘여래의 가르침을 누가 더 잘 기억하는지 소리를 내어 외워보자’고 내기를 했는가?” “그러하나이다. 세존이시어.” “그대들은 내가 서로 경쟁하라고 일러주는 설법을 들은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나의 설법이 외도들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세존께서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것을 말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서로 승부를 다투어서 되겠는가. 내가 설법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행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의 설법을 듣는 사람은 항상 네 가지 인연을 생각하라. 즉 ‘이것은 법과 율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만 생각하라. 그래서 만일 맞거든 받들어 행하여야 하느니라.”

이어서 부처님은 수행자가 어떤 태도로 가르침을 받들어 지녀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했다.

“많이 외운다고 결코 이익 될 것이 없다. 나는 그런 것을 훌륭하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남의 소머리를 세는 것과 같아서 수행자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외우는 것이 많나 적느냐보다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것이니 이는 수행자가 할 바라 할 것이다. 아무리 1000 문장을 외운다 한들 이치에 맞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을 건가. 그보다는 차라리 한 글귀라도 가슴에 새겨 도를 얻느니만 못하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지금부터는 다투는 마음으로 승부를 겨루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행복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만일 비구로서 승부를 겨루고자 하는 이가 있으면 법과 율로써 그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대들은 오직 수행에만 힘쓰라.” 부처님의 꾸중을 들은 두 사람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참회했다.

〈중일아함〉 23 권 증상품(增上品) 제 11 경

이 경전을 읽다보면 슬며시 입가에 웃음이 돈다. 목갈라나와 아난다가 누구인가. 부처님의 뛰어난 제자들이다. 그 두 사람이 서로 유식을 자랑한 것도 그렇지만, 내기를 했더니 도대체 무엇을 걸어놓고 했을까 궁금해진다. 혹시 장난스럽게 탁발을 대신해주거나, 옷을 대신 빨아주기 내기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아니면 무슨 토론을 하면서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부처님에게 불려가 꾸지람을 들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거나 이 분들이 장로제자들이라서 이 장면은 아무래도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그건 그렇고, 우리는 여기서 부처님이 ‘유식을 자랑하지 말라’고 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지식은 실천을 위한 것이지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유식은 백번 자랑해봐야 수행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도리어 남에게 ‘잘났어, 정말’하는 비꼬임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법구경〉은 이 경전의 에피소드를 근거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비록 가르침을 많이 외우고 익힌다 해도 게을러서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기르는 소를 헤아리는 것처럼 성스러운 수행의 열매를 얻기 어려우리라(雖誦習多義 放逸不從正 如牧數他牛 難獲沙門果).” -홍사성-

국제 불교 소식 캄보디아의 도약 ‘한국불교 도움’ 크다

킬링필드 오명 씻고 경제성장률 10% 개발도상국 급부상

‘킬링필드’의 나라, 동남아 최빈국을 면치 못했던 캄보디아가 최근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10%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거둬하는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현지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재건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불교계의 활발한 구호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왕성한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내 불교계 구호단체는 지구촌공생회(대표 월주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효림·성관스님), 위드아시아(대표 지원스님) 등이 대표적이다.

지구촌공생회는 지난 2004년부터 캄보디아 현지에서 식수개발사업인 ‘생명의 우물 1000’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식수난으로 고통 받는 캄포트 주민들을 위해 우물을 파고 있다. 현재까지 조성된 우물은 모두 136 곳으로 주민 2만 7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월주스님은 “우물을 파기 전엔 현지 주민들은 웅덩이 물을 마셔서 어린이의

80%가 수인성 질병을 앓고 있었다”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원만히 회향하면 현지 식수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지난해 2월 고대유적지 ‘앙코르와트’가 위치한 시엠립주에서 고아원과 교육기관인 ‘아름다운 세상, 캄보디아(Beautiful World of Cambodia)’의 준공식을 갖고 캄보디아 아동구제와 문맹퇴치 사업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실천불교는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1만 2000 평을 30년간 무상 임대받아 고아원과 초등학교 교실, 식당, 도서관 등 12개 동을 증축하고 있다. 성관스님은 “앞으로 30년간 보육원과 교육시설을 캄보디아 전역에 확대 건립하고 이후 고등학교와 대학까지 세워 교육복지타운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03년 발족한 국제구호단체 워드아시아 역시 지구촌공생회와 함께 캄보디아 낙후지역에 우물펌프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사찰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3년부터 캄보디아 지원사업에 앞장서 온 서울 도선사의 자비행도 눈에 띈다. 앙코르와트 유적지 복원사업을 비롯해 왓 라지보 사원에 컴퓨터를 기증하고, 빈민을 위한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은 한국스님으로는 최초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금장공로훈장을 받았다.

이처럼 현지에서 한국불교계의 활약이 두드러질 수 있었던 것은 캄보디아가 국민의 98% 이상이 불교신자인 대표적인 불교국가이기 때문이다. 캄보디아는 정부부처에 종교부를 따로 설치해 교단을 의호하고 있다. 또한 왕사(王師)를 겸임하고 있는 종정스님 앞에선 국왕이나 정부 최고 권력자인 훈센 수상마저 무릎을 꿇을 정도로 불교가 번성한 국가다. 때문에 부처님 자비행을 앞세운 국내 불교계의 다양한 복지사업은 정부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쉽게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립콧 캄보디아 사회복지부 차관은 지난해 2월 실천승가회 BWC 준공식에서 “양국의 이러한 교류는 캄보디아 복지는 물론 캄보디아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

미국포교 1세대 법안스님 입적

뉴욕 원각사 회주... 국제포교 일생 헌신

미국 포교 1세대로 한국불교 흥포에 헌신한 뉴욕 원각사 회주 법안스님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26일 오후 11시 52분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51세.

일찍부터 국제포교의 중요성에 눈을 뜬 스님은 지난 1974년 미국으로 건너가 당시 승산스님이 창건한 뉴욕 원각사에서 법회와 설법을 주도했다. 이듬해인 1975년 원각사 부주지로 부임한 후, 1976년에는 승산스님의 뜻에 따라 주지로 정식 취임했다.

법안스님은 미국 내 여법한 한국사찰을 조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매진했다. 당시 월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법당에 대한 불사를 차근차근 진행해, 78년 잭슨하이츠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 자체 법당을 마련했으며, 82년에는 맨해튼으로 법당을 옮겼다. 이후 본사급 규모의 사찰과 불교대학 설립을 발원한 스님은 1986년 뉴욕 업스테이트에 소재한 현재 원각사로 자리를 잡았다.

32만 평 규모의 원각사는 원래 유대인의 아동 여름 수련장으로 이용하던 곳으로, 스님은 이 곳이 한국불교의 미주전법 중심지로 키운다는 원력을 실천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라는 판단아래 이전하게 된 것이다. 또 1981년에는 필라델피아에 원각사를 건립하기도 했다. 이 모든 불사는 스님이 손수 붓을 들고 쓴 서예 전시회 등을 통해 모금한 기금으로 이뤄졌다.

스님의 원력은 현재 위치로 옮기면서 조금씩 무르익어 갔지만, 지난 1988년 갑작스런 병마가 찾아오면서 주춤하게 됐다. 하지만 스님이 미국 중심지에 뿌린 한국불교의 씨앗은 후배스님들의 귀감이 됐다. 법안스님이 평소 주창하던

“한국불교의 세계화” 원력은 후배스님들이 미주 각지에 포교당과 사찰을 건립하는 토대가 됐다.

또 지난 2004년에는 서울 구룡사 정우스님이 원각사 주지소임을 맡으면서 미국 내 한국불교의 뿌리였던 원각사도 제 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지난 1956년 직지사에서 관응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법안스님은 조계종 역경위원, 교육위원, 교무부장, 중앙종회의원, 학교법인 동국학원 상무이사, 한국종교협의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동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다.

이달의 경전

백유경(百喻經)

98 가지 비유설화 담은 ‘불교판 이솝우화’ 쉽고 짧은 이야기속에 ‘因果’중요성 강조
어리석음을 깨우쳐 지혜를 닦는다

불경 가운데 <이솝우화> 처럼 풍자적인 설화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경이 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일상의 지혜를 닦게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 경은 백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다 하여 <백유경(百喻經:Satavadana sutra)> 이라 한다. 경의 전문을 보면 모두 98 가지의 짧은 이야기가 모아져 있는데 하나같이 어리석음을 풍자해 놓은 이야기들이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다. 재산은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어리석고 무식하기 짝이 없었다. 그가 어느 날 다른 부잣집에 가 보니 3층으로 잘 지어진 누각이 있었다. 높고 웅장하며 펍 시원해 보였다. 부러운 생각이 든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나만 못한 저 사람이 이렇게 좋은 누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좋은 누각을 짓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는 곧 목수를 불러 말했다. “저 집처럼 좋은 누각을 지을 수 있겠는가?”

목수는 대답했다. “저 누각은 바로 내가 지은 것입니다.”

“내게도 저와 똑같은 누각을 지어다오.”

이에 목수는 땅을 고르고 벽돌을 쌓아 누각을 짓기 시작했다. 그는 벽돌을 쌓아 누각을 짓기 시작하는 것을 와서 보고 갑자기 의혹이 일어나 목수에게 물었다. “어떻게 누각을 지을 것인가?”

“1, 2 층을 먼저 짓고 나중에 3 층을 지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엉뚱한 주문을 하였다.

“나는 아래 두 층은 가지고 싶지 않다. 맨 위층인 3 층만 지어다오.”

목수는 대답하기를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래 1 층을 짓지 않고 어떻게 2 층을 지을 수 있으며 2 층을 짓지 않고 어떻게 3 층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집을 부리며 “내게는 아래 두 층은 필요없다. 반드시 맨 위 층인 3 층만 지어다오”라고 하였다. 이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아래층을 짓지 않고 위층만 지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하였다.

비유하면 이렇다. 부처님 제자들이 부지런히 삼보를 공경하여 정진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도를 얻으려 것, 곧 노력 없이 결과만 바라는 어리석음을 풍자한 것이다. 이상은 98 가지 가운데 10 번째 나오는 이야기이다.

〈백유경〉의 우화는 모두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세상의 인과법(因果法)을 모르거나 믿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불교의 신행은 인과법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원인이 좋아야 결과가 좋으며 원인이 나쁘면 결과가 나쁘다는 인과의 이치를 설해 놓은 이 경의 법문은 세상을 바르게 사는 지혜는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백유경〉은 〈법구비유경〉과 함께 제목에 비유라는 말이 들어있어 경 전체가 비유설화임을 밝히고 있다. 전부 4 권으로 되어 있으며, 5 세기에 인도의 승려 상가세나(僧伽斯那:Sanghasena)가 찬집하고 그의 제자 구나브르디(求那毘地:Gunavrddhi)에 의해 492 년에 한역되었다. 설법의 대상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로 전문적인 수도인 만이 아니며, 사변적인 논리를 내세우는 교리적 난해성이 전혀 없는 점이 이 경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동안거 백일기도 매일하기는 어려운데요

Q 다니고 있는 절에서 동안거 100 일기도를 합니다. 스님들의 동안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 100 일기도에 동참하고 싶지만 100 일 동안 절에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요즘은 일년 내내 소원성취, 입시기도 같은 백일기도나 천일기도 등을 하는 절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안거(安居)에 맞추어 백일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안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거제도는 본래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출가한 수행자들은 어느 한 곳에 머무는 일 없이 유행(遊行)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출가 수행자들이 정착생활을 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인도에서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우기(雨期)가 되면 땅 속의 작은 생물들이 기어 나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 다니다 그들을 밟아 죽일 염려도 있어 유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지요. 또한 비가 오는 우기에 수행하다 보니 건강을 해치는 수행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신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우기의 3 개월 동안은 유행을 중지하도록 말씀하신 것이 안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안거의 풍습은 그 후 많은 재가신자나 왕족들이 건물이나 토지 등을 희사(喜捨)함으로써 수행자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생활하는 사원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원이 생기면서 각지로 돌아다니던 수행자들은 주기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여 겨울이나 승단의 제도 등을 정비하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안거 제도를 통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수행하던 스님들은 화합과 합의를 터전으로 하는 승가의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승가 고유의 전통을 지키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지요.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오는 과정에서 나라마다 수행의 방식이나 전통이 약간씩은 달라졌습니다. 인도에서는 우기의 안거만이 있었지만 북쪽의 추운 지방이었던 중국과 우리나라는 안거가 겨울에도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님들도 일년 중 여름철과 겨울철에 산문(山門) 출입을 금하고 수행에 힘씁니다. 우리나라의 여름과 겨울 안거는 모두 부처님 당시 여름의 우기동안 사원에 머물며 수행했던 전통을 이은 것입니다. 여름(夏)안거는 음력 4 월 15 일부터 7 월 15 일까지, 겨울(冬)안거는 10 월 15 일부터 다음해 1 월 15 일까지입니다. 시작하는 것을 결제(結制)라 하고 끝나는 것을 해제(解制)라고 했습니다.

흔히 여름과 겨울은 ‘공부 철’, 봄과 가을은 ‘산(散) 철’ 이라고 합니다. ‘산 철’ 은 스님들이 선원에 모여 있는 것과는

달리 여기저기를 다니며 흩어져 산다는 뜻입니다. ‘공부 철’에는 출입이 금지되고 ‘산 철’에는 자유롭습니다. ‘산 철’ 동안에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만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요즘은 ‘산 철’에도 결제를 하고 수행하는 선원이 많습니다. 안거 기간 동안에는 선지식(善知識)에게 법문을 듣고 지도를 받으며 수행에 정진합니다.

절에서 재가의 신자들이 안거 3개월에 맞추어 절에서 올리는 100 일기도는 출가 수행자들의 정진에 맞추어 함께 수행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3개월, 90일이 아니라 100일을 정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겠지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100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100일 동안에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훌륭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절에서 하는 100일기도에 동참하시면 먼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 절에 갈 수 없다면 100일 동안 정기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좋은 법문을 자주 듣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물론 어디서든지 항상 기도하는 마음은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정초기도

천 개의 해가 떠서 비추듯
한없이 맑고 깨끗하신 부처님.
새해가 열리는 이 아침에 고요히 합장하고,
저희는 새 모습으로 발원합니다.

무한 공덕의 축복으로 태양은 떠오르고,
빛나는 생명 지혜, 끝없는 자비 덕성,
넘쳐나는 희망과 용기의 햇살이
찬란히 펼쳐옵니다.

참 생명의 불성 공덕 드러내기 원하오며
저의 원력 더 큰 지혜와 자비로 빛내주옵소서.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 속에
희구하는 착한 일들 원만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에서는 불기 2551년 1월 1일 (양력)에 기도를 입재해서 회향하는 4월 11일 수요일 (관음 재일) 까지 정해년 정초 백일기도를 봉행합니다.

정해년 정초 백일 기도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나 한국 불국사 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기도 동참금은 \$100.00 (한국은 10만원) 입니다.

백일기도 회향 기도에 동참하실 신도님들은 4월 11일 수요일 (양력)에 10시까지 불국사 법당으로 오십시오. 기도 회향날 떡과 과일 꽃을 법당에 올리실 신도님들은 사전에 사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년 정초 백일 기도 동참하신 신도님들 (지면 관계상 주소는 생략) : 신유생 목문석, 사천후인 목문균 영가, 기사생 박재뜸, 병인생 배진, 무진생 배수진, 임신생 배민철, 임진생 조남국, 병오생 노덕복 (박인주), 임오생 한 누미자 (Yumi Benton), 병신생 이은범 (Un Bom Grabski), 갑진생 김홍건, 병오생 도원 이찬혁, 무자생 김대원, 병술생 이주원 (단비), 을해생 무량화 김봉순, 정미생 문수연, 계축생 이금주, 병술생 유하연, 신해생 한애선, 임오생 정송자, 정묘생 방동현, 함평후인 이상명 영가, 갑자생 최효선, 을미생 김동희 (Stanly), 병오생 홍대선, 이종명, 기사생 정수빈, 정영환, 정유생 이용성, 정미생 황현식, 무술생 김정훈, 기해생 김창호, 경신생 윤찬웅, 병진생 이동엽, 정미생 장경순, 신유생 김미사, 을축생 김미경, 정유생 박래경, 신미생 박꽃별, 무인생 박삿별, 무술생 김종학, 계해생 김강인, 기사생 윤소영, 기축생 김헌웅, Woojin Robinson, 병신생 양순영, 정사생 김지은, 계묘생 손영찬, 경술생 김효진, 기해생 김창호, 임인생, 박향덕, 신미생 김수정, 계유생 김 준, 을미생 나순자, 임자생 서정미, 계묘생 임경순.

백일 기도 명단이 누락되신 신도님들은 미국 불국사 (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로 속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회소식 NEWS

- 부처님 오신날이 한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양력 5월 24일 (음력 4월 8일) 은 2551 번째 맞이하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인 “부처님 오신 날” 입니다. 불국사에서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 평일날 인 관계로 5월 13일 7일 기도 입재 및 연등 만들기 5월 20일 7일 기도 회향 및 봉축 법요식이 있겠습니다. 7일 기도 후에 연등은 1년간 법당에 올립니다. 2551 번째 맞이하는 연등 불사에 모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신도님들은 본인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에게도 권선해 주십시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관등 모연문” 은 사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년 연등 동참금은 미국에서는 50불이고, 한국에서 동참하시는 일년등은 5만원 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영가 일년 연등도 동일하게 50불 입니다. 형편에 따라 1인 1등으로 하실 것인지 가족등으로 일년 등을 켜실 것인지는 신도님들 각자가 결정해서 동참해 주십시오.
- 셋째주 일요일은 “정진옥 박사님과 함께하는 교리탐구” 가 있는 전법기도 법회날 입니다. 매달 3째주 교리 탐구 시간은 신도님들이 모두 참여 하는 시간입니다. 신도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부처님을 존경하므로 기쁘게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생활화 해야 하겠습니다. 모두들 유익하고 좋은 시간들 가지십시오.
- 조옥룡, 유영희 장남 조영우 씨와 한창완, 김청자 보살님의 장녀인 한 성혜 불자님 이 3월 31일 Renaissance St. Louis Hotel 에서 화축을 밟습니다. 전생으로 부터의 소중한 인연으로 한쌍이 되신 두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십시오.
- 미국땅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셨던 한국불교 포교 1세대 뉴욕 원각사 회주 법안 스님이 3월 26일 입적하셨습니다. 스님은 크신 원력으로 일생을 국제포교에 헌신하셨습니다. 장례식은 3월 31일 토요일에 원각사에서 갖습니다. 불국사 에서는 장례식에 맞추어서 일차로 조화를 보내드렸고, 불국사 주지 연암 선각 스님은 4월 15에 3번째 맞이하는 제사에 참석차 뉴욕에 가십니다. 미국땅에 한국 불교 홍보에 헌신하신 스님의 극락왕생을 빌면서, 다시한번 이세상에 다시 오셔서 불교 전법에 다시금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 3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29번 경자생 신숙례, 147번 신미생 송미경, 148번 계유생 송주열, 191번 기사생 홍주형, 398번 정해생 김영목, 399번 갑오생 유기화, 400번 임술생 김 미, 402번 신축생 오철석, 403번 을축생 오민희, 404번 정묘생 황규진, 405번 신미생 황규희, 406번 정유생 장용진, 407번 경신생 김준영, 408번 임술생 김인혁.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사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화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 3월 한 평 불사 동참자: 병오생 노덕복, 계묘생 임경순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